

# 티베트 사태, 균형적 시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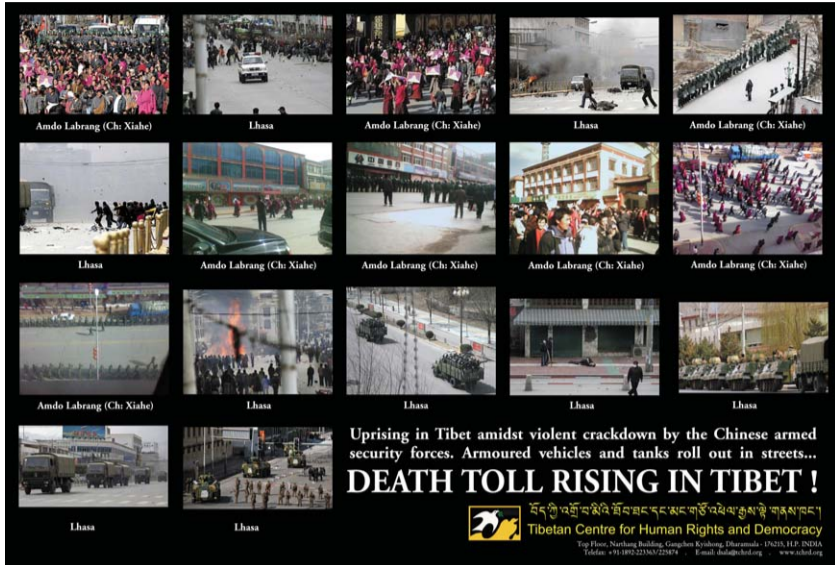
최근의 티베트 사태가 우리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뭘까? 중국의 역대 왕조에 시달리고 일제에 억눌리다가 이젠 미국의 헛기침에도 화들짝 놀라는 우리들의 서글픈 자화상이자 동병상련 때문은 아닐까?

신라의 승려 김부상이 티베트 사신들과 당의 수도 장안에서 잠시 회동한 먼 옛날 얘기, 몽골제국에 복속된 고려에 티베트의 제스파라마 등이 불경을 전해준 사실, 그리고 충선왕이 몽골에 의해 티베트고원까지 끌려간 기막힌 유배 사건 등 말고는 사실 우리와 티베트의 사이는 얼핏 별스러울 게 없다.

티베트의 현 사태에 대한 진실과 허구가 뒤엉긴 와중에 특히 서구 각국은 '중국 물매주기'에 한창이다. 중국의 오만방자한 대국행세와 야만적인 폭력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그럼 서구인들이 현재 주장하는 중국의 티베트인권 및 주권 침해와 그들 자신의 과거행적을 잠시 견뎌보자. 영국 외무성은 올림픽참가선수들에게 중국의 티베트 인권유린을 성토하도록 부추겨 양국 간의 긴장을 위험수위로 몰아가고 참스황태자는 오는 5월 달라이 라마의 영국 방문 시 공식접견을 수락하는 등 중국을 또 살살 건드린다.

하지만 영국이 티베트의 인권과 주권에 대해 말하는 건 과거광각형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영국과 제정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정탈전을 벌이던 1903년 7월, 영국군 1000여 명과 옹병 등 8000여 명으로 구성된 '티베트 원정대'는 이듬해 회한한 영허즈번드 대령의 지휘 하에 이듬해 수도 라사를 강점한다. 당대 최신무기인 막심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그들은 티베트의 2000여 오합지졸 중 500여 명을 무차별 학살했다.

그리고 그는 이튿날 인도 주재 상관에게 '그들을 심하게 밟을 것이다'고 전문을 보냈다. 실제 사상자 13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학살에서 막심기관총 부대를 이끈 아서 해도우 중위의 술화다. "상부로부터 죽일 수 있는 만



티베트 시위대와 중국 공인의 강경 진압 모습들.

치 실컷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놀라 달아나는 그들을 사살하는 게 너무 역겨워 결국 사격을 중지시켰다." 그럼 이번엔 독일 얘기로 넘어가자. 독일은 중국이 티베트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상호 경제협력회담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신적 켈트집단인 나치는 '독일 왕' 히틀러가 '티베트 왕'인 당시 달라이 라마에게 친서를 보낼 만지 특별한 관계였다.

'위대한 아리안종족'의 흔적을 찾았다고 북유럽, 중동, 아마존 강 유역 등을 순회 들쭉다니던 그들은 1938년 마침내 에른스트 세퍼가 이끄는 '티베트 탐험대'를 파견한다. 그러나 그들은 학문적 탐색보다는 부패한 라마들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독재, 그리고 삼엄한 정보체계와 무장기병조직에 몹시 매료된다. 그들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고 수집한 자료는 이내 나치친위대(SS)의 조직에 접수, 대학살과 집단공포감 조성에 활용된다. 그런가 하면, 최근 교황 베네딕토16세는 중국정부가 관용과 대화와 '길'을 터야 한다고 말했다. 1624년 티베트에 최초로 들어간 유럽인이자 가톨릭 선교사인 안토니오 데 안드라데는 현지에 교회설립까지 허락을 받는다.

그렇게 일단 '길'이 트이자 그 후 120년 동안 선교사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 현지 승려들과 마찰과 민중혼란을 야기한 끝에 1745년

완전히 축출된다. 여기서 우리는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일부 선교사들의 주 임무가 북유럽과보다는 첩보행위와 사회내분 및 문화교란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미국의 경우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이른바 '해방'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토지개혁과 종교문제 등으로 현지인들과 충돌. 1959년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한다. 그즈음 미국 CIA는 티베트인들을 비밀리에 콜로라도 산악지대로 대려가 특전훈련 등 장기무장투쟁을 지원한다.

하지만 1969년에 상황이 돌변한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방문에 앞서 모택동 주석이 제시한 미국의 게릴라지원 즉각 중단 요구를 수락한 것이다. 그래서 출지에 고산지대에 고립된 티베트 게릴라는 사그리 게릴라다.

현 티베트사태 관련한 3월 21일자 뉴스속보 받아보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들이다. 악마와 천사를 가르는 극단적 '양반사교', 또 내편이 아니면 적이란 식의 뒤돌린 '독선'은 불교의 뜻이 아니다. 모든 사물을 외눈이 아니라 두 눈으로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우리 불자들이 담담하게 걸어가야 할 중도(中道)이기도 하다. 성휴 스님

참조: 'The Lost Country, Nazi Occult, CIA's Great Betrayal, BBC Radio 4 기타

## 불교명상음악으로 자비공덕 실천

네팔의 티베트 난민가정에서 태어난 올해 37세 초임 돌마 스님은 '미토 무스칸' 등 청아한 불교명상음악으로 세계적인 전법과 자비공덕을 함께 행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및 8개의 앨범 발표와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50회 이상 공연해온 돌마 스님은 5월 독일순회공연에 앞서 3월 1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는 나입니다. 따로 분리될 수 없는 나는 비구니며 또한 가수입니다." 12세에 출가한 돌마

스님은 공연수익금으로 네팔, 인도, 티베트의 극빈아동을 위한 아리리타리학교를 설립했으며 현재는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신장 이식병원을 세우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을 맺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이 곧 나의 힘입니다."

출처: www.choying.com.Reuter, BCTV

# “자기확신 바탕으로 추진력 발휘”

## 월드 스타 불심도

### 필 잭슨

크트 작든 한 집단을 이끄는 리더는 자기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예리한 분석에서 비롯된다. '나는 무슨 일을 하려는가?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일련 해석과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자기 확신'을 지닐 수 없다.

자기 확신이 없는 리더는 팍팍 밀고 나아가는 추진력은 커녕 비실비실 뒷걸음질만 치게 마련이다. 그렇듯 더디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리더를 가까이 따를 팀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하다. 하는 일마다 실패요, 게입마다 마구 쪼터지는 것이다.

그럼 대선사 필 잭슨의 농구에 대한 간단명료한 정의부터 들어보자. "농구란 무엇인가? 여러 선수가 섬세하게 엮여 하나(Oneness)가 되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전광석화처럼 이동하는 스포츠다." 그는 이차대전 당시 '사막의 여우'란 별명으로 북부 사하라사막을 누비던 아프리카 판짜 전자군단의 로컬 대원수를 연상시키는 명칭이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공간에서 순식간에 상대를 깔아버리는 전격작전(Blitzkrieg)이 그 두 리더의 공통적인 승전비밀이다. 농구 게임 정도에서 전략이니 전술이니 웬 거창한 소리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카고 불츠 정도의 구단이면 선수와 임원부터 각종 캐리커 사업과 각종 아웃소싱 업체에 이르기까지 직접 먹여 살리는 입만도 몇 십만은 족히 되며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는 몇 천만 명을 아우른다.

예를 들어, 2006년 NBA TV는 전 경기를 세계 40개국에 동시 중계했다. '홍콩 케이블'은 극동아시아, 필리핀의 '농구 TV'는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레도위성'은 중동지역, 프랑스의 '카널 위성'은 서부유럽, 터키와 러시아의 'NTV'는 동부유럽과 러시아 등의 농구애호가들을 찾아갔던바, 그 중계료는 물론 광고 및 기타 스폰서 금액만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구단의 실수익과 납세실적도 엄청난 규모이며 연간회계도 어

중간한 나라의 국빙예산보다 많다.

1970년대 중반을 휩쓴 스웨덴의 4인조 보컬그룹 아바(ABBA)의 총수입이 스웨덴의 자존심인 불보자자동차의 수출액을 추월한 적도 있는 터라 필 잭슨 군단 역시 당당한 세계적인 대재벌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과대망상적인 백인우월주의자거나 불교를 이교도문화라며 배척하는 열간이었다면 아마 지금쯤은 공원에서 비둘기 모이나 던져주고 있을 것이다. 불퇴전의 도전의식이 번득이는 그의 전술 이론을 직접 들어보자.

"농구는 축구와 다르다. 시합 전에 공격과 방어의 루트를 설정하는 축구와 달리, 농구는 재즈 연주처럼 현장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해나가는 경기다. 한 선수가 한 박자를 놓치면 다른 선수가 즉시 그 공백을 채우고 비트를 넣어주며 팀 전체의 리듬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는 말도 참 폼 나게 잘한다. '시스템 농구는 더 이상

## 자기팀 독려·상대팀 무력화

### '양날의 칼' 같은 전술 구사

통용되지 않는다. 이제는 선수 하나하나가 시스템인 농구로 바뀌었다." 지금 그는 전투에 반드시 필요한 비트와 리듬을 말하는바, 이는 곧 뒤쪽대지 않고 매끄러운 폼을 뜻한다. 유도, 검술 등 무도이든 복싱과 같은 격투기든 리듬을 잃고 폼을 놓치면 끝장이다. 경기에 이기는 건 고사하고 헛손질과 헛발질로 허우적대다 스스로 빠뜨려서 나동그라지기 십상이다. 그의 이러한 전술이론은 마치 양쪽에 날이 선 칼과 같다. 즉, 자기 팀 전체가 일사불란한 '하나'의 폼을 유지하도록 공격패턴을 유도하는 한편, 상대팀의 폼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휘저어버리는 역공(逆攻)을 함께 암시한다. 상대 리듬의 흐름을 자르고 비트를 부셔버리자는 작전이다. 이는 자기 팀을 독려하는 한편, 상대 팀을 무력화시키는 다중전술이다. 이러한 그의 전술은 농구코트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한다. 그는 각종 매스컴의 신속한 전달성과 투머를 최대한 활용, 끊임없이 상대팀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심리전의 귀재다. 성휴 스님

##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Your hand is not to blame, but your mind

#### 자기의 마음을 탓해야지 왜 손 갖고 야단이야



A friar of renowned integrity was invited by a devout Buddhist family for dinner at their home. But so hungry, he couldn't wait while they were preparing the meal elsewhere. To his complete shock, he found himself swallowing cookies taken from a jar when no one was looking. Then he suddenly burst into loud cries of "Thief! Thief! I've caught you red-handed." Rushing into the kitchen, he grabbed a knife to cut off his right hand that had stolen the cookies. A little maid sneered at him, "Your hand is not to blame, but your mind. You hypocrite, worse than a thief!"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덕망 높은 한 탁발승을 저녁공양에 모셨다. 모두들 어디서 식사준비를 하는데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아무도 못 보는 틈에 병속에 든 과자를 슬쩍하던 그는 스스로 까무러치게 놀라 느닷없이 소리를 내질렀다. "도둑이야, 내가 금방 여기서 그 놈을 잡았네!" 그리고 부엌으로 뛰어와 과자를 훔친 오른손을 잘라내려고 칼을 집어 들었다. 그걸 본 어린 하녀가 쿡쿡거리며 웃었다. "자기의 마음을 탓해야지 왜 손 갖고 야단이야. 흥! 도둑놈보다 더 못된 위선자!"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알종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골목을 다니다 보면 어떤식당은 누가봐도 목도 알종고 장소도 험소하고 허술한데 손님이 문밖에까지 기다리는 광경을 볼수 있다. 풍수학적으로나 역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

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 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는 금강단고저, 금강삼고저, 금강오고저가 있으며 각각 비방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해도 도망치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 문안쪽위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식당과 의류점 각종매장과 회사및 사업장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와 기계제작실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 소중한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소원 성취의 선물

세상사는동안 근심과 고통없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평생을 사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그러나 부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은 많다. 세상중생중에는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 갖가지 고통을 당하며 사는 미련한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금강의 지혜를 얻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큰 공덕을 쌓기를 바라고 계신다.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慈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오만과 의심으로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을 중요시한다. 또한 물연법도 중요하다. 환자에게 약도 맞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풀건하나도 연이 되는 물건이 있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신묘장구 다라니 지갑에는 대비신력의 부처님법구인 신묘한 장구가 들어 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 대복을 받으며 물질로 인한 근심과 고통을 소멸하게 만든 영험의 지갑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한지 5년간 수한 영험으로 화제를 날고 있는 신묘장구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하는 비방의 법구가 지갑내부 상단에 들어 있고 막혔던 모든 일들이 풀리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내부에 들어있으며 영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하는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천연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또는 선물 받는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간 축원불공을 올려드립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지갑은 택배로 받아 사용하고 축원불공은 신청다음날 새벽부터 올려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 까치발 실내화 속베니 화제



크고저친 영당이 나온뻘살 굶어진 다리!

영당은 작아지고 처진 영당은 올려주고 나온뻘살은 들어가는 MBC TV 진짜저친 실험소에서 방영한 까치발 걷기 실내 운동이 큰 인기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점에, 기능성 신발 전문 업체인 (주)신도산업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집안 또는 사무실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까치발 실내화 '속베니'가 신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까치발 걸음은 발뒤꿈치에 땅에 닿지 않는 것으로 서있는 자체만으로도 배와 다리 영당이에 엄청난 힘을 가하고 허리를 반듯하게 하는 운동으로 옛날부터 딸의 영당이 커지고 허리가 굽어지면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하여 까치발걸음을 걸으라는 말을

했다이 까치발걸음은 몸매를 날씬하게 만들어준다. 속베니는 실내에서 보지만 하면 신으므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운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속베니 실내화는 평상시 운동을 꾸준한 여성이라면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육신을 부려 하루 1시간이상 신으면 몸살이 날 수 있으므로 하루 30분 정도 신고 실내에서 일하며 차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가격 58,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문의 : 02-741-4477 농협 : 053-02-228720 이진경